

덴코샤(天降社)의 큰단풍나무

도리이토게(鳥居峠) 기슭의 '덴코샤' 경내 일각에 있다.

높이 약 14m, 눈높이 둘레 2.45m, 가지길이 약 10m의 단풍나무과 거목이다.

큰단풍나무가 있는 덴코샤는 야부하라 신사(藪原神社) 예대제(야부하라 마쓰리)의 상사자(上獅子) 수레가 출발하는 장소이기도 하며, 이세의 양대 신궁과 관련이 깊다고 하여 '다이진구사마(大神宮様)'라고도 불린다.

이 신사의 숲은 예로부터 '다이진구노모리(대신궁의 숲)'라고 불렸는데, 단풍나무 고목이 식생하고 있고, 길가에 있어서 유명했다고 한다.

나가노현에는 단풍나무 거목이 많지 않다고 하는데, 나무줄기에 금줄이 쳐져 있어 그 모습이 한층 더 장엄하고, 단풍이 드는 시기에는 특히 더 장관이다.

'기소무라 문화재 탐방'

(1986.3.25 발행 기소무라 교육위원회)에서